



원로의의 대답

전 서울대 치대교수

金用琯 박사

대담/朴澤奎 (건국대 이과대학장/본지 편집위원장)

### 영지버섯 덕에 건강회복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선생님의 건강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보인다니 고맙습니다. 집 안내력이 고혈압이어서 선친께서 해방 되던 해에 고혈압으로 작고하셨지요. 나도 6년전에 부정맥이 원인이 되어서 고혈압으로 입원까지 했는데 주치의가 장례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로 악화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인 아리기 히네루(有池滋)가 지은 「영지버섯으로 낫지 않는 병은 없다」라는 책을 읽고

는 영지버섯을 집에서 끓여서 그 물을 하루 세번, 한컵씩 마셨어요. 이렇게 영지버섯 끓인 물을 몇년간 복용했더니 고혈압이 신기하게도 없어지는 겁니다. 요새는 두컵씩 마시는데 한국의 불로초라는 고려인삼, 영지버섯의 신묘한 약효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지요. 또한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지만 매일 등산하는 일, 그리고 물구나무서는 일을 계속했더니 감기도 걸리지 않고 건강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영지버섯 예찬론자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 영지버섯을 먹은 후부터는 고기, 설탕, 짠 것

등을 자동적으로 안먹게 되더군요.

선생님, 어린 시절을 회고하신다면...

평안북도 용천군 양광면 용덕동(龍川郡 陽光面 龍德洞)에서 1917년에 3형제중 막내로 태어났지요. 형님들은 개화된 분들이었는데 95세인 큰형님(金用文)은 내과의사로 현재 생존해 계시며 북경대 출신의 중국문학가로 연세대 교수를 지낸 작은형님(金用賢)은 62년에 작고하셨어요.

내자(金成福, 73세)와는 작년에 결혼 50주년을 맞았어요. 누이동생이 동경 아오야마(靑山學院) 종교과에 재학 중이던 자기 친구를 소개한다고 해서 42년에 동경치대 졸업후 귀국길에 평양역에서 기다리는 그녀를 처음 만나 그뒤 결혼했습니다. 그후 아내는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었지요. 장남(成甲, 전자공업회사 사장), 차남(承甲, SBS 촬영기사), 그리고 딸은 독일에서 살고 있어요.

### 신문배달하며 東京유학

선생님께서서는 신성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본유학길에 오릅니다. 동경유학시절이 평탄치 않았고 결국 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가슴에 담은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고향에서 6년제 양광(陽光)공립 보통학교를 다녔고 1937년에 선천에 있는 신성(信聖)중학교 5년제를 졸업하였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출신의 장리욱박사가 교장으로 계셨는데 뒤에 서울대 치대교수가 된 것도 장선생님께서 서울대 총장으로 계신 인연 때문이었지요. 중학교는 하숙생활을 하면서 다녔는데 선친께서 땅문서를 잡히고 재정보

증을 서준 것이 잘못되어서 재산을 완전 탕진, 패가망신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의사인 형님이 생활비를 보내주어서 별 어려움은 없었으나 중학교 졸업 후 진로 문제로 큰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와 형님께서 의학공부를 강요하시고 특히 장리욱박사도 세브란스 입학을 권유하셨지요. 일본 와세다 제2고등

를 보내셨지만 1년반을 버렸는데 결국 아버님, 형님에게 백기를 들고 39년에 동경에서 귀국해서 의학을 공부할테니 용서해달라고 빌었지요. 39년 4월에 동경치대에 입학, 42년에 졸업했어요. 당시 일제 말기 전쟁시기라 의·치대의 수업연한이 6개월 단축해서 3년6개월만에 졸업한 셈입니다. 졸업후 일본

### 장리욱총장 소개, 교수로

해방후 서울에 오셔서 서울대 치대교수가 되셨고 75년 연세대로 옮겨서 계속 치대학장을 지내셨는데 독일유학은 언제 가셨습니까?

해방된 뒤에도 선천도립병원에 근무하다 47년 3월 서울에 와서 은사인 장리욱총장을 찾아갔더니 강영진학장을 소개해 주셨고 이러한 인연으로 47년 4월부터 75년까지 서울대 치대교수로 구강외과를 담당했습니다. 연세대 치대에는 82년까지 근무하였어요.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인 56년에 안호상박사(초대문교부장관) 추천으로 독일유학, 58년에 귀국했습니다. 「구강점막핵산반응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한국치과의사로서는 독일유학이 처음이었지요. 제자기운데 독일유학생이 많은데 현재 독일, 스위스에서 개업중인 서울대출신 치과의사가 많은 편입니다.

## “과학기술 발전은 문학·예술과 균형을 이뤄야”

학원 문과에 입학했는데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고 형님께서도 의학공부를 하지 않으면 학비를 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묘한 것이 그 당시 어떤 여인과 사귀고 있었는데 이 처녀가 내가 일본 유학가는 것을 알고 자기 아버지의 소 판 돈을 몽땅 훔쳐서 내게 주었어요. 당시 70원이라면 거금이지요. 선천에서 동경까지의 여비가 10원20전, 나머지 돈으로 동경에서 2~3개월간 살 수 있었어요. 나야 훔친 돈인 줄 모르고 받았지만 어쨌든 낯선 이국땅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했는데 막상 돈이 떨어지고 나니 살길이 막막했어요. 집에서는 한푼도 보내주지 않아서 낫도장사, 신문배달, 군고구마장사 등을 닥치는대로 했어요. 신문배달하면 먹고 자는 것이 해결되었고 학비는 저축한 것으로 충당, 정말 눈물겨운 고향생활의 연속이었지요. 아버님이 계속 귀국을 종용하는 편지



◇김박사(왼쪽)가 박위원장에게 옛 여인의 소 판 돈으로 시작된 동경유학의 얘기를 들려주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규슈(九州)의 구마모도현에 있는 일본 육군병원에서 군의관 대우 문관으로 1년간 지내다가 귀국했습니다. 그후 선친과 가깝게 지냈고 105인사건의 주동인물이었던 백영엽목사가 일본이 곧 망할테니 빨리 피신하라고 해서 43년 11월경에 형님이 공의로 계셨던 평북창성에 가서 지냈어요. 그리고 44년 5월경에 고향 선천도립병원 치과에 취직했습니다.

### 연극 좋아해 신영균 등 배출

선생님께서도 연극을 매우 좋아하셨고 치대 제자중에는 널리 알려진 연극·영화인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나자신이 연극을 좋아해서 국민학교 때부터 연극에 출연하였고 신성중학교 시절에는 전적으로 연극배우를 할 정도였어요. 햄릿, 안나카레리나, 죄와 벌 등의 번역물을 공연했습니다. 장리욱교장선생님은 한때 “너는 문학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어요. 연극이 좋아서 서울대 치대교수, 연세대 치대학장 시절에도 연극부를 적극 지원했어요. 제자중에 신영균

(배우), 박암(배우), 김영기(영화감독) 등은 서울대 치대출신이며 김영기는 그후 서울대 의대도 졸업했고 모두 자랑스러운 치대출신 연예인들이지요. 이해랑, 김동원 등 원로연극인들과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이들과는 해방후 만나서 지금까지 가깝게 지냅니다. 최은희, 신상옥부부는 부산 피난시절부터 사귀었는데 이런 분들과의 교류가 내게는 자랑이고 큰 기쁨이에요.

치과의사로서, 치과전공교수로서, 고유 전문직종에 충실하게 종사하면서 연극을 사랑하고 연극인들과의 사귀를 오랫동안 지속한 것이 내 스스로의 삶을 매우 유쾌하게 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밖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한 일로 기억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동경에서 공부할 때 하숙집 주인 아들 이름이 이케다 기요시(池田清)씨인데 이분은 와세다대 경제학부 출신으로 일본의 지식인이었지요. 그 당시에 나는 몰랐으나 이분이 훗카이도탄광에서 트럭운전을 하는데 동경에 오면 당대의 일본정치가 도야마 미찌루(頭山滿)를 만나곤 했어요. 이 도야마가 반전파, 반천황파였거든요. 하숙집 아들이 반전, 사회주의 계통의 인사를 만나고 또 대학출신으로 트럭운전을 한다는 게 매우 이상했어요. 내가 방학이 되어 귀국할 때면 내용을 알 수 없는 편지를 주면서 선천역에서 찾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었어요. 선천역에 오면 허름한 차림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국말로 김용관이냐고 물으

면 그 편지를 전해주었지요. 당시 동경에서 기차를 타면 이동경찰이 타서 승객들의 짐을 철저히 조사했고 시모노세키에서 관부연락선을 타도 검문, 검색이 심했어요. 그런데 나는 의학서적속에 그 편지를 끼웠고 또 의과계통 학생들의 조사는 심하지 않아서 편지 전달이 수월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도 이차대전 말기에 007활동과 비슷한 스타일이 있는 작전에 참가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수환추기경 「유학동기」

선생님은 커피와 맥주를 잘 마시는 분으로 소문나 있거든요.

나는 160cm의 키에 전에는 73kg이던 체중을 영지버섯을 먹은 다음부터는 47kg을 유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커피 20잔을 마셨으나 요새는 한잔 정도만 마셔요. 독일유학시절 맥주를 어쩌나 잘 마셨는지 독일인들도 놀랐지요.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마시는데 2타스(24병)를 혼자 마셨어요. 남기용교수(전 서울대교수)도 당시 독일에 함께 있었고 나와 동갑인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같은 유학생이었는데 그들에게도 술 많이 마시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 칼럼트집 교수승진 탈락

선생님께서서는 1978년경 하이마트(Heimat, 고향)라는 수필집도 발간하셨는데 책에 얽힌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강외과학개론, 치과마취학, 치과 의학대사전 등의 저서와 수필집이 있지요. 치과의사가 된 이야기, 독일유학생할, 귀국선(당시 배로 독일까지

갔다). 평소에 생각하는 것 등을 수록했어요.

그런데 독일 유학시절 약업신문에 서독야화라는 칼럼을 4,5회 연재했어요. 약업신문의 함승기사장이 직접 원고료를 집에 전달해주어서 가족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부당국자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내용들이 실렸다 해서 서술이 퍼렇던 자유당시절 비자 연장이 안되어서 학위논문을 준비중이었지만 공무원신분의 국립대교수라 어쩔 수 없이 귀국했어요. 그뿐만 아니고 귀국후 부교수에서 교수의 승진도 압력을 받아 연기됐습니다. 당시 법대 황산덕교수의 박사논문도 이미 통과됐으나 문교부의 인가가 안나와서 보류되던 때였어요. 4.19로 자유당정권이 물러나고 과도정부가 수립되자 이병도문교부장관시절, 황교수의 학위취득과 나의 교수승진이 이루어졌어요.

선생님 끝으로 한국과학기술에 대해 평소에 느끼셨던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의 광범위한 전수를 바라고 싶어요. 일본, 미국에만 치우치지 말고 유럽쪽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폭넓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편 과학기술의 독자적인 발전보다는 문학, 예술과 균형을 이루어 추진돼야 해요. 치의학분야에서도 치과의사의 양성과 병행하여 치과의료기기의 첨단화와 최신 의료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치의학계의 원로로서 그리고 연극애호가로서의 보람찬 생을 누리시는 선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독자들과 함께 빕니다. 